

## 우성사료

### 낙농 우수목장의 날 행사 개최



주우성사료가(대표이사 부회장 지평은) 낙농 우수목장의 날 행사를 지난 9월 23일 충남 홍성소재 동원웨딩뷔페에서 홍성낙협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홍성지역 낙농경영인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와 우수농장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병렬박사(주,미래자원ML)는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젖소의 세밀한 관찰과 배려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젖소가 편안하게 우유를 잘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육성우 및 건유우의 사양과 환경 관리, 급수조 관리, 경영마인드를 통한 농장운영, 그리고 합리적인 TMR 급여관리를 통한 번식관리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여 젖소의 경제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고의 비결이라고 소개했다.

홍성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충훈 축우부장(우성사료)은 70%에 육박하는 유사비로 농장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요즘, 단순히 사료비 줄이기에 애쓰기 보다는 10%의 생산성 향상으로 20% 이상의 사료비를 절감 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

다고 말하며 매산목장(대표 곽정수/홍성군)의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매산목장은 전년대비 유량이 3kg 증가한 년 평균 두당 31.8Kg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년째 체세포를 10만 내외로 유지하고 있고, 공태일수는 전년대비 26일을

단축하여 검정농가 평균대비 월간 두당 약 3백여만원의 추가수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성사료의 낙농전문사료 오웰빙은 축우사료 설계 원리인 토탈뉴트리션 개념에 세계적인 낙농전문회사인 프로비미社(네덜란드)의 간 건강에 대한 검증된 노하우를 접목시켜 만든 제품으로 생기찬 간, 건강한 발굽, 편안한 반추위, 깨끗한 유방, 늘 젊은 자궁 등의 효과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 CJ제일제당사료BU

### 축우캠페인 개시회의 개최



CJ제일제당 사료BU(부사장 박호인)는 지난 9월 5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 영업인력이 참석한 가운데

데 Challenge 10,000 축우캠페인 개시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CJ 박호인부사장은 급변하는 축산환경 아래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부사장은 또 축산농가의 전업화, 규모화, 호수 감소 등을 열거하면서 영업사원들의 축종전문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모든 솔루션은 시장에 있으니 왕성한 현장 활동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만족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 기술, 서비스가 과연 Only One인지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이며,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사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강조했다.

급변 축우캠페인을 주관한 김무진축우PM은 어려운 시장상황에 놓인 낙농산업에 대한 생존전략을 발표했다.

발표에서 김무진 PM은 어려운 시장환경을 극복하는 생존전략은 생산성 향상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며, 국내 낙농산업에 있어서 사료비 증가, 유대인상, 우수 소비부진 등이 향후 낙농시장의 주 이슈가 될 것이며, 목장은 현재보다도 더 나은 생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진 PM은 축군의 세밀한 영양관리에 대해 “적정한 영양소 공급과 과다 혹은 부족한 영양투자로 인한 비용낭비 및 생산성저하로 인한 수익 감소 해소”할 것을 피력했다.

또 그는 철저한 개체관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생산성은 급여사료와 환경 그리고 사양관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더욱 기본에 낙농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CJ Feed는 판매조직을 대상으로 목장에 대한 기본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착유우에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J Feed는 최근 목장의 급여패턴이 변화에 따라 착유우가 부족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신제품도 동시에 출시했다.

이날 CJ Feed의 모든 구성원들은 CJ Feed가 대한민국 대표 사료 브랜드로서 현재 어려운 축산현실에서의 역할과 CJ Feed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영업조직과 공유하는 자리로서, CJ Feed는 고객의 수익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상생으로 WIN-WIN하겠다고 다짐했다.

CJ Feed의 상승세가 축산업계에 몰고 올 뜨거운 바람을 기대해 본다.

### 예천 한우협회 생균제 작목반, CJ제일제당 사업 제휴 조인



예천 한우협회 참우 생균제 작목반(반장 박용제)이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 및 유통, 사료공급을 위해 CJ제일제당 사료BU(부사장 박호인)와 사업 제휴 조인식을 갖고 사업파트너로서의 상생을 다짐했다.

지난 9월 22일 예천한우협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번 사업 제휴 조인식에는 안영성전국한우협회에 천군지부장및예천한우협회회장단, 박용제생균제 작목반장, 예천군 황명섭산림축산과장, 조영훈 CJ

Feed 동부사업부 사업부장, 김무진축우PM, 양시용사료/축산연구소 수석연구원 및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협약을 체결하고 친목을 다졌다.

박용제생균제작목반장은 “우리 생균제 작목반은 전국에서 품질이 가장 우수하고 저렴한 생균제를 공급함으로써 가축의 대사기능 향상과 함께 항생제 사용을 줄여 친환경 축산을 실현하고 있다”며 “이번 CJ Feed와의 전략적 사업 제휴를 통해 고급육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J Feed 조영훈동부사업부부장은 이어 “한우 고급육 브랜드 ‘참우’가 더욱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고급육 생산에 적합한 사료 공급 및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동반자로서 생산부터 마케팅·유통에 이르기까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CJ Feed 동부사업부 1지점 이하규 지구부장은 “CJ Feed와 예천 한우회 생균제 작목반과의 전략적 업무 제휴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참우가 한우시장에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예천 한우협회 생균제 작목반은 예천군내 한우사육농가 123명이 200만원씩 2억 4600만원을 공동 출자, 친환경 한우고기 생산에 필요한 발효 생균제를 생산해 5000여두의 한우 거세우에 급여 하고 있다.

## 삼양사

### 김천한우 대학과정 수료식 성료

한우 고급육 생산만이 ‘경쟁력’이다.

강신우 (주)삼양사 사료BU장, 김천 김충섭 부시



장, 박일정 시의회의장, 박광수 김천 축협조합장, 김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료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30일 경북 김천 농업기술센터에서 ‘김천한우 대학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 진행은 내빈소개, 박창기 기술보급과장의 경과보고, 강신우 (주)삼양사 사료BU장에게 감사패, 권오인의 8명이 개근상 수상, 박수동 교육생 58명 대표 수료증 수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월부터 9월30일까지 8개월 동안 삼양사 축우PM인 박용렬 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강신우 (주)삼양사 사료BU장은 “여러 도시를 다녀 보지만 시장, 부시장, 시의회의장, 조합장님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곳은 보지 못한 것 같아 뜻밖”이라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강 사료BU장은 “교육을 받고 견학을 하고 해서 한우를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해도 소비자가 없으면 힘들다.”고 말하며 “하지만 김천은 혁신도시로 KTX 역사 건립 등 많은 현안사업들이 잘 건립이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비자라고 생각한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며 “보다 질 좋고 맛 좋은 고급육 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